



이우복 2대 사무총장이 말하는 1975년 창립 47주년 즈음에 돌아보는 역사

1975년 8월 10일로 기협이 재건된 지 만 8년이 된다. 8년 전 우리들이 기협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이 검사요원의 확보와 검사기재의 완비, 검사실의 장만 등이었다.

기협의 역사를 돌아보며

검사요원의 확보는 각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교실을 비롯해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우수한 기술요원이 상당 수 국내 각 지방에 있어 적당한 대우와 보수를 지급한다면 기협에서 필요한 인원은 어느 때라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기계, 건물확보 등은 당시 이 협회의 사정으로는 그 해결책의 방안도 수립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현미경을 위시하여 냉장고 등 여러 가지 검사기계는 국내 생산이 안되거나 고가이어서 이를 완비 하자면 일시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야 하고 검사소의 확보도 필요했다. 즉 기협이 기생충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자면 군사전투와 마찬가지로 훈련된 전투요원, 최신의 무기 그리고 시설을 갖춘 기지가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협에서 이 세 가지를 갖추자면 일시에 수억의 많은 투자가 필요했으나 그 당시의 실정으로는 현미경 단 10여 대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다행히 정부와 기생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의료계, 민간유지 등의 깊은 이해와 협력으로 일본해외기술협력사업단에서 300대에 가까운 현미경, 40대의 냉장고, 기타 기생충관리에 필요한 기본시설의 현품원조를 1969년 봄부터 1973년까지 기술협력이란 명목으로 무상공여를 받아 그런대로 기본시설만을 완비하게 되었다.

대지구입을 위한 노력, 건물확보를 위한 꿈

받아놓고 보니 많은 양의 의료기계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었다. 도움받은 기재를 100% 활용해야 국제적 신용이 유지될 것이며, 또 이 기재를 100% 활용함으로써 하루라도 더 빨리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위생시설을 완비한 검사소 건물의 설립이 커다란 숙제로 남게 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확보가 필요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서 협회 전 직원이 대지구입비 마련을 하고자 일반경비를 단 10원이라도 절약하여 대지구입비를 적립하기에 온 노력을 다했다. 이 노력으로 1975년 3월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과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각 도청소재지에 200평 내지 500평 정도의 대지를 구입했다. 남은 문제는 건물신축비의 염출이었다. 다행히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의 호의로 일본 JICA에 절충하였으나 이 자금은 일본 국내법으로 건물비 지원은 못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수포에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었고 얼마 후에는 일본만국 박람회기념협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제공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1972년 10월에 지원요청서를 내 보았다.

그러나 다음 73년 3월도 다 지날 무렵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안 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아 낙심의 극에 달하였다. 협회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건물확보의 희망은 없어진다는 막다른 생각으로 지원 못 하는

이유라도 알고 다시 한 번 직접 설명과 재고를 요청하기 위하여 4월 초 부랴부랴 일본만박동경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생각보다는 깊은 이해를 해주었고 또 일본국 외무성의 친지들의 측면지원 등으로 당초결정이 반복되어 서울을 비롯한 8개소의 검사실 건축비를 3개년 계속사업으로 지원받기로 구두양해가 이루어져 우선 1973년도에는 부산, 경남, 경기, 경북지부 등 3개소의 본건물 건축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말을 보았다.

(중략)

기생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 그때

우리 기협 전 직원은 더욱 분발 노력하여 우리의 육성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신 인사들의 후의에 보답하는 뜻에서 기생충 완전박멸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고 다짐했다. 검사소의 특징이랄 것은 별로 없으나 단지 지금까지의 일반 검사소 건물과 다른 점을 몇 가지로 열거하면 의료기관인 만치 위생시설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7개소의 모든 건물에 중앙집중 난방시설을 갖추므로 자동실내 온도조절을 시도하였고 검사요원의 강의실과 샤워시설을 갖추므로 직원의 건강에 유의하였으며, 모든 폐기물은 전부 강제소각함으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였다. 또 모든 창문을 외창 5mm 내창 3mm의 유리 이중창으로 건축하였으므로 방한, 방서, 방음과 방범을 기하였으며 부산, 충남, 경기, 전남지부에는 4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생충을 견학하러 오는 인사들에게 제공함으로 국내보건사업에 이용될 뿐 아니라 전인류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서로 이용됨으로 장차는 한국이 기생충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앞으로 이 건물 등은 기생충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모든 보건봉사에 폭넓게 이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MEDI^YCHECK